

## 교과 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실었습니다.

### 이옥희 서울 송파중 국어 교사의 국어·수학·사회 융합수업 소설 ‘운수 좋은 날’ 읽으며 수학·사회 교과도 짝!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1920~30년대 서울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학생들에게 과거 하층민의 삶은 낯설기만 하다. 열심히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김첨지의 경제상황도, 급식에 흔히 나오는 설령탕 한 그릇을 아내에게 사주지 않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러다보니 인물의 처지와 심정을 공감하기는커녕 소설의 주제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이옥희 서울 송파중 국어교사는 학생들이 1920~30년대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김첨지의 삶을 깊이 살펴보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국어·수학·사회 교과를 융합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은 뒤(국어) △일제강점기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한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보고, 만평·신문 기사 등으로 당대 사회계층 구조를 파악한 후(사회) △당시 1원의 가치를 오늘 날의 가치로 환산해본 뒤 경성 거주민들의 하루 평균 생활비를 살펴봄에 김첨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려보았다(수학).

이 교사는 “김첨지를 표면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의 거친 언행이 나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던 학생들이 당대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에는 지독한 가난에 지친 결과물임을 이해하고 김첨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대상 중1	과목 국어수학사회	차시 4차시
학습주제	사회의 거울 '소설'로 삶 성찰하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 김첨지의 하루 행동을 정리하며 그의 갈등·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한다.</li> <li>▶사회 1920~30년대 교통수단을 살펴보고, 인력거의 등장배경과 사라진 이유를 생각해본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신문 만평을 통해 사회 계층구조를 살펴본다.</li> <li>▶수학 김첨지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1920년대 경성 시민들의 하루 평균 생활비를 산출하고, 소설 속 물품가격과 현재가격의 비를 구하여 당시 1원의 가치를 판단해본다.</li> </ul>	

1~2차시 수업주제	소설 '운수 좋은 날' 읽고 소설 내용 이해하기
1~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읽기] '운수 좋은 날'의 인물의 삶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의 생애 알아보기</li> <li>-소설의 배경에 대한 지식 구체화하기</li> <li>-인물의 상황과 처지 파악하기</li> </ul> </li> <li>▶[감상] 김첨지의 삶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의 심리 알아보기</li> <li>-인물의 하루 정리하기</li> </ul> </li> </ul>

**교사의 도움말** 소설을 읽을 때에는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정보(인물의 동선, 수입·지출, 등장한 음식 및 생활상 등)를 찾으며 읽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같은 '땀'이라도 계절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첨지가 한 겨울에 인력거를 끌며 흘리는 땀은 서민의 고달픈 삶을 드러내지만 여름에 흘리는 땀은 단순히 더움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요소를 파악해야만 작품의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소설에 나타난 김첨지의 심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를 이용한 학습활동을 진행했다. '동소문(김첨지의 집)→광화문→동광학교→서울역→인사동'과 같이 김첨지가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와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도로 살피며 그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지도를 살피며 거리 변화에 따른 김첨지의 심경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설에서 김첨지는 집과 가까울수록 불안함을 느끼고 반대의 경우에는 다소 마음이 가벼워진 모습을 보였다. 소설을 읽기만 했을 때는 거리에 따른 김첨지의 심경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지도라는 시각자료를 살피니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3차시 수업주제	당시 사회상 탐구하기
3차시(사회)	<p>▶[탐구] 당시 사회 모습 탐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수단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군 탐구하기</li> <li>-영화와 만평을 통한 당시의 사회계층 구조 탐구하기</li> </ul>
<p><b>교사의 도움말</b> &lt; 단순히 1920~30년대 교통수단의 종류를 살피기보다는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서민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차의 도입으로 인력거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김첨지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제시대 신문명의 등장으로 과거 직업이 쇠퇴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군도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p> <p>학생들은 1920~30년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대 모습을 담은 만평과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중국·일본 등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양장옷을 즐겨 입는 모던 보이(걸)가 등장하는가 하면, 명동에는 찻집, 댄스홀, 백화점 등이 생겨났다. 즉, 그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문화와 문명을 즐기는 계층이 존재한 것이다. 당대 생활상을 나타낸 자료를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면 김첨지가 어느 수준의 하층민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계층 구조도 이해할 수 있다.</p>	

4차시 수업주제	인물의 소득 수준 파악하기
4차시(수학)	<p>▶[분석] 김첨지의 경제적 상황 이해하기(모둠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첨지가 그날 하루에 번 돈의 가치에 대해 예측하기</li> <li>-1920년대 경성에 사는 시민의 하루 평균 생활비를 구하여 김첨지가 그날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한 이유 파악하기</li> <li>-소설 속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의 비를 구하고 당시 1원의 가치 예측하기</li> <li>-김첨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토의하기</li> </ul>
<p><b>교사의 도움말</b> &lt; 학생들이 받는 용돈의 단위가 천원,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소설 속 화폐의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운수 좋은 날’의 의미와 김첨지가 아내에게 설령탕을 사주지 못하는 이유를 공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1920년대 쌀 한 가마니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 당시 1원의 가치를 추산해보고, 이를 경성 시민의 하루 생활비와 비교해보았다. 생존에 꼭 필요한 쌀과 장작의 가격이 기호품인 설령탕의 가격과 비슷함을 확인한 후 학생들은 김첨지가 설령탕 구매를 망설인 이유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뼈뺀 경제 상황 때문임을 이해했다.</p>	

## 교사의 코멘트

소설 '운수 좋은 날'의 시대적 배경을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가 강의식으로 소설 내용을 가르칠 경우 껍데기만 배우는 수업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김첨지가 가난한 하층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의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 수업은 학기 초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팀 티칭(Team Teaching)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추가적으로 미술 교과와도 융합이 가능하다. 콜비츠, 고흐, 황재형, 김홍도 등 하층민의 가난한 삶을 다룬 동·서양 작가의 작품을 살펴며 각 작품의 특징과 미술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수좋은 날의 등장인물 및 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물의 삶과 사회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성찰해볼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는 추가적으로 성찰일기나 편지쓰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혹은 김첨지가 세 들어 사는 주인집의 자녀 입장에서 일기를 쓰면 인물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하층민을 돕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옥희 서울 송파중 국어 교사